

KPPO News

Korean Parents Partnership Organization

Email : bcakppo@gmail.com

KPPO 소식

♣ 정기모임

4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30분, 풍림식당에서 정정숙 박사님을 (Family Touch) 모시고 올바른 자녀교육에 관한 세미나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강연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BCA 학부모로 지내면서 고달프고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내용 7 페이지)

♣ 총회

6월 8일 수요일 오후 7시, BCA 1층 카페테리아 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인사와 재정보고 후 1년 동안의 KPPO 행사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임명된 2016-17년도 임원소개 및 올해 수고하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회 후에는 각 아카데미별로 모여 올해 졸업하는 12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생활과 대학진학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회장 인사

서늘한 가을바람과 함께 시작한 한 해가 뜨거운 여름햇살과 함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느라 계절을 잊고 지내던 아이들에게는 참 대견하다는 말을 아이들의 버팀목이자 최고의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신 부모님들께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4년 간의 시간을 멋지게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2016년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의 총회, 한국의 멋과 맛을 자랑할 수 있었던 International Tasting,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열린 세미나, PPO Picnic, Teacher's Appreciation Luncheon, Field Day 까지, 올해도 KPPO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KPPO 부모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KPPO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행복한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 한은영 드림



♣ 2016-17 KPPO 임원명단

고문	회장	부회장/11학년
한은영	Juyoung Yoo	Cindy Kim
201-655-0180	201-491-8213	201-232-5159
Heejin Choi	Brittany Kang	Olivia Kim
AMST 17	AMST 18	AVPA 18
부회장/10학년	총무(1)	총무(2)
Sandy Kim	Irene Park	Misik Ha
201-452-5956	646-345-6004	201-663-5172
Jeremy Kim	Younjee Ko	Julie Ha
AAST 19	AMST 18	AVPA 18
회계	서기	편집장
Dohyun Chun	Sophie Youn	이경희
201-314-5487	646-943-1293	646-244-6021
Noah Chun	Peter Park	Iris Lee
ACAHA 18	ABF 19	ABF 18
신문1	신문2	신문3
권은경	고숙경	안정아
647-234-7227	845-664-0983	201-966-4939
Evan Lee	Frederick Choi	Ciyoon Kim
ABF 18	AEDT 19	AAST19
12학년대표	11학년대표	10학년대표
김민	고은주	Eunice Kim
201-233-4727	201-300-9343	201-560-8430
Sarah Kim	Jay Mo	Danyoun Kim
ABF 17	ATCS 18	AVPAM 19

♣ KPPO 시니어 장학금 수상자

Gina Gerbasio
Young Gyu Yoon
Janet Lee
David Yang



♣ KPPO 학년모임

➤ 9학년 소식

5월 학년 모임

일시: 5월 23일 수요일

장소: The First Methodist Church

57 Burton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매달 모이는 9학년 학년 모임으로, 이번 5월에는 Mother's Day 스페셜로 지난 일 년 간 아이들 뒷바라지로 자신을 가꿀 틈도 없이 너무나 수고가 많은 어머님들을 위해 "동안 화장 메이크업"을 주제로 하여 최고의 스타일만을 추구하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혜경 강사님 (Regina Yoo, ACAHA 2017 어머니) 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세미나 동안, 쉽고 재밌게 세세한 것 하나까지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을 통해 진정한 프로의 모습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시간 넘게 웃음을 잃지 않고 모델을 서주신 어머님 (April Hong, ACAHA) 덕에 참석하신 나머지 9분의 어머님들이 10년을 더 젊게 돌리는 "동안 화장 비법"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내내 많은 질문과 답이 오가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겁고 유익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세미나 후에는 Grace Kim (AVPA/Music) 가정에서 강사님과 참석한 9학년 어머님들 함께 점심 식사와 다과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동안 화장의 깨알 팁을 전해드립니다.

동안의 첫 번째 원칙은 피부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동글동글한 눈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웃을 때 튀어나오는 앞
 광대의 볼러서
 네 번째는 투명하게 윤기 나는 촉촉한 입술
 다섯 번째는 진하지 않은 화장 입니다.

➤ 10학년 소식

5월 24일 POC에서 정기모임과 더불어
 내년에 봉사해 주실 새 학년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경쟁을 높은 입학 시험에 붙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소감을 나누는 KPPO 신문기사를
 부탁받은 때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학년을 마무리하는 학년모임을 5월 24일
 가졌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셨고, 직장,
 여러 일정으로 참석 못하신 분들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몸은 멀리 있어도 학년모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다는
 소식에 모두들 함께 마음 흐뭇한 시간
 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새로이 11학년을 맡아 봉사
 해 주실 학년대표를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본격적인 입시가 준비가 시작되는
 11학년을 맞아 더욱 서로 격려하며 함께
 힘든 시기를 겪어 내자는 다짐과 함께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 11학년 소식

매주 셋째주 월요일마다, 4월에는 레오니아
 미가에서 5월에는 POC에서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6월의 총회 음식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2학년 소식

지난 4년 간 KPPO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학교 행사에도 우리 학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년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간 듯 합니다.
 자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같은 학부모
 끼리 많은 정을 나누며 활기찬 자랑스런
 BCA KPPO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년 모임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었
 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편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6년도 졸업반 어머니들은
 세화회라는 모임의 이름을 정하고, 6월 9일
 저녁 7시 포트리 Prost 에서아이들이 Prom을
 하는 동안, 세화회 Prom Night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KPPO 임원진과 학부모님들 모두 건강
 하시고 또 만나요.



PPO 소식

♣ 제 23회 Annual PPO Picnic

매년 5월, 신입생과 가족들을 환영하기 위해, 5월 21일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PPO 주최로 피크닉 행사가 운동장 잔디밭에서 있었습니다.

2020 입학 예정자들에게 다양한 클럽 소개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재학생들에게는 교우들과 맛난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KPPO 학부모님들께는 2개의 음료수 부스와 수박 코너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봉사 해주셨습니다.

KPPO에서는 새로 입학하는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KPPO를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 Field Day 운동회

BCA 커뮤니티의 전통으로 매 여름방학 전 주최하는 Field Day가 이번 해에는 6월 17일, 금요일날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어울려 여러 가지 운동경기 및 게임을 즐기며 1년 동안 학교생활을 마무리 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햄버거와 핫도그를, KPPO에서는 전교생과 직원들을 위해 갈비를 준비하였습니다.



♣ Staff Appreciation Luncheon

6월 1일 Staff Appreciation day Luncheon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KPPO에선 한국 음식을 선생님과 교직원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학교 소식

♣ Senior Experience 시니어 인턴쉽

- BCA 커리큘럼의 장점 가운데 하나인 시니어 인턴쉽은 시니어 학생들의 전공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관에서 멘토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난 6월 1일, 시니어 인턴쉽을 마친 시니어들이 담당 멘토와 함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 College Fair 대학 박람회

4월 21일 오후 6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학 박람회에서는, 전국의 150개 이상의 대학 관계자들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이며 유용한 최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 또한 어느 때 보다 높았습니다.



♣ Class of 2020 Induction Ceremony



5월 18일, 2020 Class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The Bergen County Technical School district is an educational model that prepare student to live, work and lead in a global community" 라는 모토로 학교 소개 및 재학생들의 경험등을 나누며 함께 2020 Class 신입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PPO 회비 및 회계보고

♣ 회비 납부 및 보고

2015 ~ 2016년도 회계 보고

수입

인수인계 (2014~2015)	\$ 1,711.72
회비 (134명)	\$ 5,360.00
International Dinner Fee (41명)	\$ 1,230.00
12학년 Donation	\$ 200.00

수입 합계

\$ 8,501.72

지출

9월 신문비용	\$ 300.81
9월 총회	\$ 241.93
KPPO 계좌 관리 비용	\$ 165.13
International dinner 비용	\$ 1,147.32
정기모임 비용 (11월, 2월, 4월)	\$ 277.24
피크닉 및 Staff Luncheon	\$ 555.50
졸업생 장학금	\$ 404.80
졸업생 선물	\$ 460.00
6월 총회	\$ 170.00
Field Day	\$ 2,260.00

지출 합계

\$ 5,982.73

잔액

\$ 2,518.99

♣ 추가 회비 납부자명단

- Monica Yoo (AVPA 2019)
- Heechan Ku (AVPA 2019)
- Thomas Hahn (AAST 2016)
- Hannah Kim (AMST 2016)
- Amanda Kwon (AAST 2016)
- Jake Shin (ABF 2016)
- Soomin Kim (AVPA 2016)
- Christina Chong (AAST 2016)
- Christopher Oh (AEDT 2016)
- Hilary Shin (AMST 2016)
- David Yang (AAST 2016)

2016 Class 졸업



♣ **한인 졸업생 명단**

Academy	Last Name	First Name	Academy	Last Name	First Name
AAST	Cho	Heejin	AEDT	Oh	Christopher
AAST	Cho	Min Sung	AMST	Chang	Chris
AAST	Cho	Seong Woo	AMST	Han	Rachael
AAST	Chong	Christina	AMST	Jang	Hyerim (Helen)
AAST	Chung	Bryant	AMST	Jung	Kangho (Paul)
AAST	Hahn	Sangwoo (Thomas)	AMST	Kim	Aaron
AAST	Kim	Dongeun	AMST	Kim	Ah Hyun (Hannah)
AAST	Kim	Hanna	AMST	Kim	Bryan
AAST	Kwon	Dong Bien (Amanda)	AMST	Kwak	Lorianne
AAST	Lee	Jennifer	AMST	Lee	Beatrice
AAST	Park	Jennifer	AMST	Shin	Noah
AAST	Song	Justin	AMST	Shin	Yunjung
AAST	Yang	David	AMST	Yang	Daniella (Hyerin)
AAST	Yoon	Young Gyu	AMST	Yoo	Jin (Jinny)
ABF	Choi	Elizabeth	ATCS	Kim	Robert
ABF	Choi	Yoonsun	ATCS	Lee	Joon
ABF	Ha	Sarah (Yu Kang)	AVPA/M	Cho	Haine
ABF	Kim	Annette	AVPA/M	Choi	Hyewon
ABF	Lee	Daniel	AVPA/M	Im	Hyobin
ABF	Lee	Janet	AVPA/M	Kim	Soomin
ABF	Lee	Yuju (Jenny)	AVPA/M	Ko	Hannah
ABF	Lim	Hyeji	AVPA/M	Lee	Chae Rim
ABF	Shin	Young Jun (Jake)			
ACAHA	Han	Min Jeong (Shelby)			

세미나 집중 취재

♣ 정정숙 박사

지난 2016년 4월 5일 포트리 풍림에서 패밀리 터치 정정숙 박사를 모시고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 총 24명이 참석하여 많은 감동과 교훈을 받은 세미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년 전 BCA를 졸업한 딸을 하버드에 보낸 후 그 비결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KPPO 강사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제 딸이 하버드에 합격하고 지금은 졸업하고 페이스 북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그 딸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이 어릴 때 남편이 근 위축병 일명 루게릭으로 불리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8년간 투병한 남편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아들, 딸에게 적절한 돌봄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버드 보낸 비결을 알려 달라고 하는 강의에 적절한 비법을 전할 수가 없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엄마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더니 더 좋아하시며 감동받던 기억이 다시 납니다.

지난 주는 12학년들의 대학 합격 발표가 난 주간입니다. 사실 지금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주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의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BCA 는 타운에서 1,2등을 다투던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인데 혹 아이들이 어떤 압박감과 좌절감으로 학교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런 감정들로 힘들어 할 때 부모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위로하고 적절한 충고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면 더한 압박을 견뎌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BCA 로 보내도 되지만 좋은 대학이 목표라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게 낫습니다.>

딸이 BCA에 입학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에 모인 어머니들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좀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아이들의 최대치로 대학을 결정하면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턱걸이로 대학을 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원, 과외, 컨설팅을 동원해서 대학에 보내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딸을 대학에 보낸 후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 지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다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버드에 보낸 걸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딸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잠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한계를 경험한 아이들 중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많은 돈을 들여 컨설팅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철저한 가이드를 받고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대학에서 부딪친 한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25일 뉴욕 타임지에 What Drives Success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글에는 아시안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아시안 부모님에 의해 미국 특목고를 졸업하고 소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학생들이 괄목할 만한 좋은 성적과 업적을 내다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이유로 낙오하는 이유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3가지를 간추려 아시안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공통점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Superiority Complex 인데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들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형성되는 정서인데 이것으로 압박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Insecurity 인데 이것은 정서적 불안감을 말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이정도 밖에 안 돼? <이게 최선이야 더 열심히 해봐, 왜 B야?>

이런 말들이 자신은 언제나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만들어 내어 시달리다가 부모님의 완벽한 욕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Impulse Control 인데 이것은 충동 조절 능력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강박이 되면 삶을 즐길 줄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세 요소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업적과 성취 및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업적을 내지만 한 순간의 좌절과 아픔으로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좌절과 추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긍심입니다. 아시안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자긍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긍심이 인생 전체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고 성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 및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당하는 무시를 성공으로 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아시안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기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계속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존재를 기뻐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이론 업적과 성취만으로 기뻐하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못나서 혹은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지속되면 우울감 또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중에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은 박수치고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는 관계가 아닌 아이들과 소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비평은 아이들의 건강한 자긍심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을 통해 행복해지면 공부는 더 잘하게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 참여 코너

♣ 9학년을 마치고

Sandy Kim 9 학년대표
(Jeremy Kim, AAST 2019 어머니)

각종 학기말 행사로 졸업 준비로 한창 바쁜 6월입니다. 입학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9학년이 다 끝나가니 정말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며 버겐 아카데미에서의 1년 간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What a year!

무엇보다 이 어렵고 힘들다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와 친구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신나게 이른 아침 스쿨버스에 오르는 아이를 보며 감사의 마음이 앞섭니다. 학교 과제와 공부에 밤잠 설치며 놀러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아이에게 궁금하여 하루는 학교가 왜 좋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 왈, "엄마, Atmosphere is so nice, kids are nicer and teachers are nice... just I like the air there."

로컬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학 수준의 리서치 시설과 실험장비, 리서치 기회들, 미국 고등학교 최고의 커리큘럼과 끝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 뛰어난 학벌과 경력의 석박사 선생님들, 화려한 수상 경력의 각종 클럽과 학생 활동, 각종 로컬 공연과 행사에 대관되어지는 아름다운 오디토리움,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대내외적인 버겐 아카데미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외형적인 것들보다 bright 하며 motivated 된 친구들이,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바로 사람이 좋아서 또 그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그리 big deal이 아닌가 봅니다.

버겐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많은 70여 명이 넘게 한국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2015-16 년에, KPPO 9학년 대표 맘으로 많은 9학년 어머님들과 또 KPPO 선배 임원 어머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저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학교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도 보람 있었지만, 왜 이렇게 KPPO가 좋으나 물어시면 저도 주저 하지 않고 사람이 좋아서 9 학년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The finest"하신 분들만 골라서 모인 듯한, 왜 아이들이 이렇게 우수하고 뛰어난지 어머님들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하며, 이 버겐 아카데미라는 배를 함께 타고 뭔가 보이지 않고 험난한 여정을 같이 하는 동지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함께" 하기에 신나고 재밌는 또 위로와 힘이 되는 앞으로의 남은 3년 되기를 기대합니다. 9학년 어머님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일 년이었습니다. Love you all!

♣ 졸업생 학부모 이야기

김정화
(Robert Kim, ATCS 2016 어머니)

한국에서 잘 나가던 아줌마가 미국에 와서 영어의 문제로 사회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한숨만 쉬고 있던터에 길거리에 앉아서 병어리마냥 구걸하던 맨하튼 거지들을 보고 말했다고 한다.

“너거는 영어도 되면서 왜 그러고 있노?”

아이가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치면 의무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다. 나에겐 막내인 셈이다. 모든 부모가 그러하겠지만 잘해 준 것보다 아쉬운 점이 더 많다.

흔히 하기 좋은 말로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되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쉬운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이에게 턱없이 욕심만 내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아침 잠이 많은 나는 얼마나 학교가 휴교하기를 고대했는지. 그러면서 아이에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 집중해야 한다고 설교했고 이런 내가 아이 눈엔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는가? 말 수가 적은 아들 아이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일 땐 여지없이 참아 왔던 이런 저런 주문을 해 왔던 나는 얼마나 비겁하고 못난 에미였던가?

아직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내가 아이에겐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라고 거기다가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라고 부모에게 십일조를 잊지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뇌시킨 나는 오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심한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인지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11학년 초 한참 중요할 때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가슴 철렁하게 한 아들이다.

혹시나 재가 태몽처럼 큰 인물이 될려고 하나 잠시 헛갈렸던 적도 있었지만 결코 아니었다. 11학년 중간 쯤에는 친구들에 묻혀 대학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안심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말도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시간이 힘들었다.

아들은 또 나에게 선언을 했다. 아이비 스쿨은 가지 않겠다고. 마치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 엄마도 아이비는 다 싫다. 지난 여름 아이비에 물려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아이의 비위를 맞추었다.

항상 말해왔지만 난 아이 주위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부모에게도 감사한다. BCA 학교에도 감사한다. 고등학교 청소년기는 부모보다 친구에게서 학교 선생님에게서 더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서로 잘 통하지 않았을까?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도 질 줄 아는 멋진 아이로 성장하게끔 음으로 양으로 도와 준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제는 내 걱정해야 할 때다. 오늘도 맨하튼에서 마주친 영어도 되면서 거지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이 예사로와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아이 밥 해 주고 라이드 주느라 내 청춘 다 받쳤다고 푸념하며 백수 생활을 정당화 해 왔다.

아이가 나의 방패막이 되었던 셈이다. 이젠 나에게 쏟아질 시선이 두렵다. 난 밥 해 주고 라이드 줄 아이도 없으면서 왜 그러고 있냐고.

